

코코의 산책

그는 내게 사진을 자주 보냈다 나무와 들판 이름 모를 꽃 사진들 핸드폰을 열면 퍼즐처럼 빠곡했다 가끔은 계절을 건너뛰기도 가끔은 너무도 어두워 비어 있는 자리 같은 조각들도 있었다 들여다볼 때마다 사진을 찍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눈코입이 한데 뒤섞여 조각난 얼굴들 나는 차를 타고 멀리 서울을 떠날 때마다 사람이 많은 명동 거리를 헤맬 때마다 비슷한 풍경 그와 닮은 사람을 찾아보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코코야 코코야 애타게 부르며 온 아파트를 뒤지고 있었다 모니터 속 사람들은 흩어진 채 범위를 좁혀가며 겁이 많다는 고양이를 찾고 있었다 코코는 어쩌다 집을 나오게 된 걸까 아파트 지하실에 설치된 그물망 속에서 무언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탐정은 그것이 놀라지 않도록 검은 천을 든 채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던 작은 두 눈이 선을 그리며 멀리 달아났고 코코야 코코야 그물의 끝을 켜 채 눈가를 닦고 있는 한 어린 학생이 있었다

등불이 켜져 있는 오두막 사진이었다 고향이 없는 내가 고향이 그렇게 된다면 그의 사진을 단서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전에 그곳을 나의 고향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이름 모를 들판을 따라 몇 개의 산봉우리를 넘어 통나무집의 문을 연다 해진 해먹만이 나를 반겨주는 장면 이것이 내 상상의 막장이었지만 집 나간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화면 속 탐정은 늘 바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코코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다 노르웨이 숲이라고만 알고 있었다